

Marjorie M.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장 혜 경* · 유 태 명**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Lesson Plan Development Based on Marjorie M. Brown's Home Economics Curriculum Paradigm in Area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hip

Chang, Hye-Kyung* · Yoo, Tae-Myung**

*Hansung Girls' Middle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nd proposed a lesson plan for the area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hip" in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current educational practice in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um, the employed goal and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are neither stated specifically nor closely interrelated. This problem has led us not being able to achieve pursuing go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to emplo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In view of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lesson plan reflecting the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inefficiency in the current practice of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esson plan was based on the Marjorie M. Brown's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which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

1. The goal of home economics is to help individuals and families to become autonomous in their own family life and to be more capable of interacting with others in behalf of well-being of the family and of social evolution toward a free society.
2.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is conceptualized as practical science and personal service profession.
3. The nature of problems which home economics should deal with is perennial and practical.
4. Practical reasoning composed of historical understanding, critical action, and reflective thinking is appropriate for the previously mentioned goal and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and

for dealing with perennial practical problems.

The lesson plan was proposed for one of perennial problem, "How should we understand, create, and maintain our family culture?" by employing practical reasoning and teaching models such as "role play" and "classroom meeting."

1. 서 론

A. 문제 제기

현재 우리 나라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서는 가정과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나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기회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1994). 이기훈(1989: 256)은 교육정책의 기본적 입안 과정에 가정학 전공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와 교육 전문직의 가정과 전공자 비율이 낮아진 일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가정과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나 관점을 기초로 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1994)는 현행 제5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교육과정의 획일성, 교육내용의 부적합성,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교육과정 운영의 폐쇄성 등으로 분석하여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교육도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개발상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문제들을 개개의 문제로 다룬다면 또 다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행 중등 가정과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으로 재분석하였다.

첫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성격을 지닌 교육목표가 제시되지 못하여 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교사나 학생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교과내용과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현행 교과내용으로는 주어진 목표들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택할 때 현행 교과내용으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가정과의 목표가 교육 현장에서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가정과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목표에 포함된 여러 개념들의 정립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교과서 내용에는 세분화된 가정학의 각 전공 분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없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가정과의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첫째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게 되며, 둘째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기훈(1989)이 가정학의 성격 정립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김경미(1993)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여 개념이 모호한 것이 많으므로 가정학의 성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정학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의 정의, 목적 등을 구성하는 개념들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둘째 문제인 교육현장에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지적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가정학자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에 준거하여 중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C.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가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연구자가 교과과정 개발의 준거로 삼은 Brown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가정 교과와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적용시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고, 그중 한 부분의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중요성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은 생산적인 것보다는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문제, 구매와 소비에 따르는 문제 같은 일이 추가 될 것"(교육부, 1994 : 24)이므로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잘 부각되었다.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에 대한 철학은 문제제기에서 지적된 우리 나라 중등 가정교육의 세 가지 문제점에 포함된 여러 문제 요인들을 반사숙고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과정 개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은 가치지향적인 관점이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같은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Brown의 철학을 적용하기에 타당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극복을 목표로 하여 Brown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가정과 교육의 성격,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근거로 하여 학습지도안을 구성하여 한 예로 제시하였다.

II. 현행 가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서론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점을 여러 문헌, 관련 분야 학회나 연수회에서의 토의 내용, 그리고 현장 경험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교육 현황을 되돌아 보고 반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려고 한다.

A. 교육목표와 교과성격에 관한 문제점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중 가정과 교과목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과업을 이해시켜, 가족과 사

회의 일원으로서 협동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93 : 12-13). 또한 학년 목표에서는 나와 가족 및 사회와의 인식을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현장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가정과 목표와 학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즉, 목표가 학생들이 가정과교육을 통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달리 Duvall(1971 ; 유영주 재인용, 1977)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육자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윤서석(1990)은 가정과교육에서 정립해야 할 문제로 과학 문명의 고도 발달로 인해 현대의 가정생활이 직면하고 있는 비인간성과 가치 혼돈의 문제를 학습자로 하여금 해결하려는 생각과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질서를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우리의 목표에서 다루어야 할 바람직한 주제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특성을 지닌 교과목표를 세우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현행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족관계와 인간발달' 영역의 특성에 따르면 이 영역을 배우면 자신과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된 현행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볼 때, 도구적인 지식만이 개발될 뿐 가치관의 정립이나 그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을 영위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Brown(1976)이 주장한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따르면 가정과교육은 문제해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꾸밀 때는 이론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항구적인 문제란 인간이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한 어떤 세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이은해, 강혜원(1983)은 이것을 항존적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항존적 문제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변함없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명옥(1992)도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인데 반하여 사회학은 인간생활을 사회적 측면에서 포착하는데 있어서 주로 경험과학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Brown(1980)은 사회학이나 기타 유사 타학문과 달리 가정학은 '가족'에 모든 연구의 초점을 두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B. 교육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에 관한 문제점

교육부(1994)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가정과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고려해 볼 때, 내용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김혜선(1987)은 새로운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 미래지향적인 가정 철학 내지 가정 윤리를 확립하고, 가족 내의 인간관계,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인지하도록 중등 교육에서 교육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되어 왔다고 하였다.

문숙재 등(1987)도 가정과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발이므로 교과내용을 구성할 때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발전적인 가치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날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송은경(1989)은 가정과교육은 그 목표가 가정생활의 향상, 발전과 창조라고 볼 때 현실생활에서 유리되어서는 안되며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역 사회 생활에서 실제 활용되고 응용, 발전되어 미래의 생활에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기훈(1989: 257)은 중등 학교 가정과교육의 목표는 생활인의 양성에 있으므로 교육내용의 구성은 '의, 식, 주, 아동, 가정관리'등으로 종적인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이라는 실체를 놓고 '가정'이 사회의 구성 단위라는 사회 현실감을 충분히 고려하여, 횡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rown(1976)도 위와 같은 학문이나 교과목 위주의 내용을 지양하고 문제 중심적으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과로 꾸밈으로써 가정 교과가 우리의 가정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정숙(1978)은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 내용이 중심이 되며 가정생활의 향상 발전이 중심 과제라고 하였으며 가정과는 가정생활을 높게 평가하는 가치관 위에 성립되어 있으며 가정생활 여부는 인간생활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정과교육은 종전과 같이 어른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일반적, 객관적 '가정생활 인식 활동'에 기준을 두고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여, 종래의 기술가능 중심이 아니라 지적 이해에 기초를 둔 실천활동 즉, 인식 활동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Brown(1976)이 주장하는 가정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학자들은 가정과의 목표는 가정생활의 물질적인 안녕외에도 인간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제시해야 하며, 가정과의 교육내용도 그와 부합되게 구성되어야 함을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과에서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부족한 기술적, 이론적 문제만을 다루어 왔던 실정을 볼 때 가정과 교육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C. 교육내용과 교과성격에 적합한 교육방법의 효율성의 문제점

교육부(1994)는 가정과의 지도방법으로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로 볼때에 실천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주입식 위주의 학습지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가정과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지식과 기능 위주의 내용은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적합하게 수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효율성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조영일(1978)은 이제까지의 가정과교육이 특히 일선 현장의 보수적이고 답보적인 침체상태에서 교육방법상의 탈피를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에서 새로이 인식되고 좀 더 나아가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재 개선되어야 한다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이런 점은 김정숙(1985)의 연구에서 60% 이상의 가정과 교사들이 설명 위주의 학습지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김은주(1985)에 의하면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학습지도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볼 때, 가정과의 선호도가 학생들에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은정, 신상옥(1992)의 서울 시내 중학생 학부모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영역별 필요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목표를 '가정생활 및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 과목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가정은 가족 공동체이므로 모든 가족이 가정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정 교과를 실습 교과 보다는 정신적인 면의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영역별 필요도에서도 가사, 기술적인 면보다 정신적, 사회적인 면 즉, '가족 관계', '가정관리, 경제', '인간발달과 양육' 등의 영역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서 지금까지의 중등 가정교육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손인수(1980 ; 이춘화, 이진숙, 1990 재인용)는 가정과교육이 실생활과 밀착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론에 치중되어 있어서 창조적인 능력과 실용적인 태도 같은 인간성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논의 되어 왔다고 하였다.

문영보(1981)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에 비해 학생이 가정과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학습의 목적도 전통적인 가정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연구자는 가정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학생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고, 가정과 사회의 영향이 가정과 교사의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가정과 교과내용과 교육방법 자체가 '가정생활에 관련된 문제해결'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교과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교사의 선입관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 교과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 목적을 전통적인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결과만 보고 가정과 사회의 영향이 교사의 영향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결국은 우리의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학생들이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만큼 구체적으로 꾸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목적, 교육내용이 바르게 꾸며지고 그것에 적합한 지도방법으로 교육될 때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받는 왜곡된 믿음이나 가치관까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Brown의 교과과정 개발의 이론적 배경

A. 가정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법

Brown은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실천과학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전문 분야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성격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꾸미기 위해서 그녀는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성격을 띠는 교육내용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천적 추론을 제시하였다.

1. 항구적인 문제

가정학에서는 그 시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항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즉, 어느 시대마다 언제나 당면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가족안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면하는 문제, 인간 사회에 살기 때문에 당면하는 문제 같은 항구적 본질을 가진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본질상 항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는 사랑, 건강, 인간갈등, 먹고사는 문제, 옷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 가족 단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제 자체가 사회적 관점을 갖는다.

2. 실천적인 문제

현대에서는 '실천적(practical)'이라는 단어가 '당면한' 혹은 '편의적 사용'이라는 일상적 언어의 의미로 주로 풀이하여 현재 가정학이 지향하는 바에 이런 의미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실천'의 어원적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그리스어의 'praxis'란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는 'practice'라고 번역되며 이 말은 일상어에서 기술적 능란함을 뜻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praxis'라는 말은 삶의 객관적 상황(실제)과 주체적 행동(실천)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데 현대철학의 일반적인 경향은 주체의 의식적 행동을 강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하버마스, 1963: 359).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practice'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문이 다루는 질문들은 추구하는 목적, 방법 및 관심 등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이론적 질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으로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는다. 기술적 질문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질문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를 묻는다. 반면에 실천적인 질문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행동의 방향을 추구하는 질문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나?'의 미래지향적 당위성을 지니며,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즉,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목적 자체에 대한 비판이 없이 이미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기술적 질문과 달리 심사숙고를 통해 행동에 관한 도덕적 타당성 및 정당성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심사숙고 없이 습관, 관습, 전통, 충동 등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이 다루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천적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추론은 실천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상호 연관된 일련의 지적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특히 극단

적인 단순화나 기계론적 결정론으로 빠져 버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실천적 추론은 강조되어야 한다. 실천적인 추론은 보편적인 과학적 연구에서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증법과 같이 절차가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즉, 실천적 사고의 과정 속에서, 이전의 행위들은 계속되는 다음 단계들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런 추론 과정의 한 부분이 다음 과정과 연결되기 전에, 혹은 이전 단계의 초기에 행위들과 연결됨이 없이(독자적으로) 완성되는 것만도 아니다. 실천적 추론의 구조는 매우 포괄적이거나 철학자와 같은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천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추론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Brown and Paolucci, 1979: 26-29).

(1) 문제 내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이상 상태나 목표의 설정

(2) 실천적인 문제들과 문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의 여러 국면에 대한 정보 해석

(3) 설정된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수집

(4)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차후 결과와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

(5) 행동에 대한 판단과 위에 언급한 여러 이성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기

B. 가정과 교과과정 개발의 개념적 구조

1.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의 본질과 교과과정 요소의 개념

교과과정을 개발할 때의 내용 선정이나 조직의 원칙은 개념의 틀(사고체계)에 근거해서 일관성있게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여러 저자들이 모여 교과서를 쓸 때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쓰기는 하나 단원의 형식을 빌어 각 전공 영역을 각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원칙, 규칙, 이론이 각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각론에 기초해야 하므로 저자들의 창의적 내용구성이나 교과 목표 설정도 관철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에 임하는 관점이 대부분의 경우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게 된다.

Brown(1976: 4)은 교과과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위한 개념적 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개념의 틀은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개념의 틀이 과목 내의 어떤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과과정 구성시 필요한 여러 요소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즉, 각 부분에 어떤 교육목표를 세울 것이냐, 어떤 교육내용, 교육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할 것이냐 등 교과과정 이론, 원칙이 근거가 된다. 교과과정의 틀이나 이론은 교과과정을 계획할 때 실천적인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일련의 믿음과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Brown(1976)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과정 개발의 개괄적 관점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교과과정을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학습자, 그 학습자가 살고 있는 사회, 지식,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들을 서로 일관성 있는 관점을 갖고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Brown의 가정학 관점에 가장 가까운 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려고 한다.

(1) 학습자의 개념

이성적인 학습자는 독립적으로 비판적,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간은 능동적이고, 그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들의 환경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고에 있어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과정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각 개인들이 다른 대답들을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르칠 수 있다.

(2) 사회의 개념

사회 조건과 규범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유효할 수도,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기준과 상황은 인간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고 사회와 인간이 힘을 합해서 발달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회는 지적, 도덕적으로 진보해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보호하는데 지적, 도덕적으로 봉사할 책임이 있다. 자유로운 사회는 교육을 사회

발전의 열쇠로 생각한다. 사회는 임무(문제)지향적이다. 개인과 사회는 동등하다고 보며 따라서 사회 조건과 규범이 옳지 않으면 바꾸도록 노력하고 사회는 인간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3) 교과목의 지식의 개념

지식은 교과목과 교육방법이나 학습과정으로 되어 있다. 지식은 지식인에게 능동적인 사고과정을 요구한다. 모든 지식에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으나, 판단이나 가치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과정과 표준이 있다. 지식이 생겨나는 사고과정은 감정과 가치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지적 행동은 지식의 사고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지식은 지식인에 의해 이론과 실천의 접목,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접목, 지식과 가치와 과정의 접목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은 삶의 상황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천적인 삶(행동)에 힘을 준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은 지식의 연장이므로 그래서 가치 주장은 선의 객관적인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교육 목표

민주적인 사회에서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문제해결, 행동 등이 학습되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5) 교육 방법

학생이 성숙함에 따라 교사의 지도는 감소시키면서 비판적,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 민주주의적 사회과정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Brown은 인간과 사회의 역동적 관계,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이론과 실천의 접목, 민주적 사회에서의 자주적인 인간 개발을 강조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교과과정 개발에 임하였다.

2. 가정과 교육내용 구성과 선정을 위한 모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지도안의 이론적 근거인 Brown의 가정과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모형은 앞의 실천적 추론 방법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설명상의 용이를 위하여 모형에 포함된 개념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Brown, 1976: 2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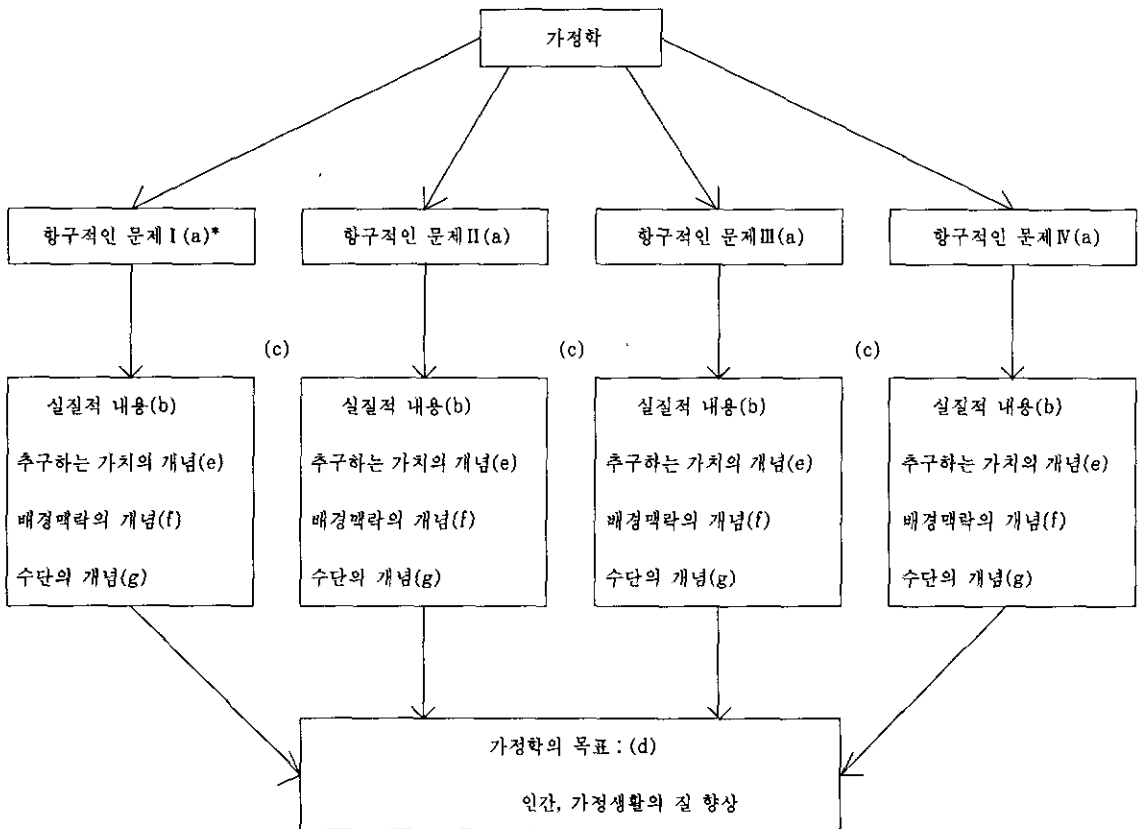
(1) 항구적인 문제의 구성

교과과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가정 생활에 관련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비판적, 창조적, 도덕적 능력을 고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가정학의 교육내용이 인간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과 가정 내의, 또 문화와 사회에서의 항구적 본질을 갖는 문제(그림 1의 a)를 중심으로 한다면 과연 그런 항구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 목록은 아니지만 우선되어야 한다.

결정된 각 항구적인 문제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여러 실질적인 내용(그림 1의 b)들이 선정될 수 있으며 각 실질적인 문제들은 그림 1의 (c)에서 점선 부분이 의미하는 서로 공통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이런 공통성에는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개념이나 사고과정과 사고력, 의사결정력, 각 내용에서 다루어야 하는 환경조건이나 배경, 문제해결 방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다. 이런 항구적인 본질의 실질적 내용들은 모두 가정과의 목표인 인간생활의 질 향상(그림 1의 d)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가정과교육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가정과교육의 실질적 내용구성을 위한 모형



출처 : Brown(1976 : 27-28)

* 문제의 수는 편의상 넷으로 제시되었으나 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선정될 수 있다.

(2)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개념의 설정

위에서 언급된 항구적인 문제 안의 실질적 내용 구성 즉, 가정과교육 내용구성에 포함되는 구체적 인 요소 선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은 결국 가정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항구적인 문제 안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과 관련된 개념들(그림 1의 e)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념선정은 교육내용 구성과 선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런과정 없이는 항구적인 문제해결에 관련이 없는 여러 부수적인 내용을 다루느라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개념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각 항구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만 독립적으로 다루므로써 각 개념을 분열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또한 각 부분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개인, 가족, 사회와 문화에 대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하되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도 다루야 한다. 즉,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가치있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가정과의 교육내용을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목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개인, 사회, 문화에 따라 인간생활의 질을 어떤 상태로 개념짓느냐에 따라 즉,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육내용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내용의 개념적 요소에 관한 고려와 결정

가정학이 앞에서 구성된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우려하고, 해결책이 항상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면 각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의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조건에 준하여 강구되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 안의 개념적 요소에 대한 고려와 결정이 필요하다.

1)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사고과정과 관련된 개념(그림 1의 c)

2) 각각의 문제의 해결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다

음과 같은 환경적 조건의 개념들에 관한 고려(그림 1의 g)

-가족구성원의 인간관계의 조건

-가정내의 조건

-확대가족에 관한 조건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사회의 조건

3)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는 문화적 배경 및 맥락에 대한 해석과 고려(그림 1의 f)

개인의 발달단계와 심리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 배경과 고려된 행동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와 해석과 같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말한다.

4) 학습과정을 위한 개념에 대한 결정

1) 에서와 같이 교과과정의 목표가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에 더욱 책임감있게 도와주며, 가정과목이 가정생활의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라면 자아, 인간 상호관계, 사고방법의 필요한 개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정과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사고과정과 그를 위한 기술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 제시된 학습지도안은 본 장에서 소개한 Brown의 교과과정 개발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그내용과 방법이 선정, 조직되었으며, 그 외에 전반적인 교과적 성격과 교육목표, 교과과정에 대한 관점 등은 Brown의 가정학, 가정교육학 철학을 기초로 하였다. 학습지도안은 특히 가정과 성격에 부합되며, 가정과가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선정된 교과내용의 구성과 수업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가정과 한영역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로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며 가정과교육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정과교육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인식은 타 영역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깨닫게 해준다.

IV. 교과과정 개발

A. 교과과정의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교과내용을 가정과교육의 학문적 성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항구적 본질의 문제들과 하위의 실천적 성격을 갖는 실질적 문제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항구적인 문제 I :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발하여야 할까?

실질적인 문제들 :

* 개인적 존재로서의 나

1.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은 것은 삶을 계획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2.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발달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발달해 나갈 수 있나?
3.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나?

* 가정적 존재로서의 나

4. 가족내에서의 나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5. 사회의 구성 단위로서의 가족내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6.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며 생활하여야 할까?

*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

7. 청소년기의 타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8. 개인의 차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어떤 의식과 태도를 지녀야 할까?
9.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비판적인 압력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항구적인 문제 II :

우리의 가족문화를 어떻게 이해, 창출, 유지시켜야 하나?

실질적인 문제들 :

1. 우리 가족이 과거에서 부터 가져온 우리 가족문

화를 구성해 온 믿음을 미래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새로운 가족문화의 창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항구적인 문제 III :

가정생활의 안녕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적 행동은 어떻게 영위해야 하나?

실질적인 문제들 :

1.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 이념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2. 가정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3.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가정내의 의사소통적 행동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B. 학습지도안 개발

학습지도안은 교과과정의 내용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Brown의 교과과정 개발의 이론에 준거하여 개발되었다. 즉, 본 학습지도안은 Brown이 제시한 교과과정요소의 개념들에 대한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표1>과 <표2>를 구성하는 교수, 학습 활동은 항구적, 실천적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적 행동을 중요시하며, 수업 운용은 그녀가 제시한 실천적 추론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항구적인 문제 중 항구적인 문제II만을 택하여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지도안에서 다른 두 실질적 문제들은 각각 몇 개의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45분 수업에 기준하여 개발되었기 보다는 내용 구분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수업에서는 융통성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항구적인 문제 II

우리의 가족문화를 어떻게 이해, 창출, 유지시켜야 하나?

실질적인 문제 :

1. 우리가족이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믿음을 미래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질적인 문제 :
2. 새로운 가족문화의 창출을 위해 가족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표 1) 실질적인 문제 1. 우리가족이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믿음을 미래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실천적 추론	참고자료
첫째단계	<p>*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우리의 가족 문화를 어떻게 이해, 창출, 유지시켜야 하나?”의 중요성을 앞에서 다룬 항구적인 문제 I 과 다음에 다룰 항구적인 문제 III과 연계하여 인식시킨다.</p> <p>* 전통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 한편 예 : 염상섭(1994)의 ‘三代’에 대한 배경과 인물 설정, 줄거리를 소개한다.</p> <p>* 소설의 특정 장면 즉, 어머니와 아들 내외,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三代의 갈등이 그려지는 대화 장면의 대사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읽게한 후 소설 속의 가상적 상황과 우리의 실제 가족 상황을 같이 연결시켜서 서로 느낀 점을 토의, 발표시킨다.</p> <p>* 소설에서 나타난 갈등이 현대 우리 가족 내에서도 똑같이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발표시킨다.</p> <p>*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해 묘사시켜 본다. (예 : 여러 가족이 한 집에 산다. 아버지가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진다. 어릴때 부터 효를 배운다. 여자는 바느질을 배운다.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닮도록 교육시켰다.)</p> <p>* 한국 전통 가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p> <p>* 한국 전통 가족의 특징과 연관하여 소설 ‘三代’ 속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 문화의 모습과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눠본다. (대부분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내면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p> <p>* 과거에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 형성에 바탕이 되었던 사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 : 효도사상, 장유유서 사상등의 유교사상)</p> <p>* 앞의 소설에선 어떤 점들이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찾아보게 한다. (예 : 어른들이 맺어준 언약에 의해 혼인하여 정이 없이 산다. 남자가 젊은 첩을 들인다.)</p> <p>* 가부장 제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소설의 내용과 현재의 가족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서로 이야기로 나눠본다. (예 : 효도 사상이 철저해서 노인을 잘 부양한다.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p> <p>* 가부장 제도, 남존여비, 삼강오륜등의 사상이 우리의 가정 생활에 미친 점에 대해 설명한다.</p>	<p>* 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다.</p>	<p>* 염상섭(1994) * 장해경(1994) pp123-124 * 장해경(1994) pp55-56</p> <p>* 한국 가족학 연구회 편(1993) p108</p>

* 크리스찬 아가 데 미 (1989) p190

*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한다.

* 추구하는 바람직한 이상 상태나 목표 설정한다.

* 문제 상황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해석을 한다.

* 문제에 관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에 대해 인식하고 비판한다.

* 특히 서양과 우리 나라에서의 가부장 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전통을 받아들이려야 한다는 소수의 입장과 전통의 가치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입장이 있다.)

*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예 :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 지 잘 모르겠다.)
* 우리나라의 철저했던 양반제도가 없어진 예를 들어 보충설명을 한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고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살다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온다면 바뀔 수 밖에 없다.)

* 각자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문화나 규범의 창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의 '항구적인 문제 1'에서 배운 점을 상기시킨다.
(내용 : 우리가 모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중학생인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하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또한 사회의 규범, 가치, 전통은 절대로 고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서 긴박한 위기와 갈등을 통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 역사 속의 사건 중에서 대중이 주체가 된 사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동학혁명 등과 같이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들을 먼저 떠올렸음)
* 사람들의 의식이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열거해 본다.
(예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 해방운동, 여권신장)
* 이러한 사실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으나 결국 바뀌어진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 논하게 한다.

(예 : 여자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 주변에서 각자가 못쳐서 스스로 이루어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예 : 학생회장을 직선제로 뽑게된 일,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함게하여 수익금으로 학급문고를 산 일)
* 우리 주변의 왜곡된 믿음 흔히 이데올로기(많은 경우 사실은 정당한 믿음이 아닌데 장기간에 걸쳐서 무의식적으로 믿어온 사상)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전통실과 지동설의 예로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 위와 관련하여 가부장 제도에서의 왜곡된 믿음들을 찾아본다.
(예 : 남존여비 사상, 부모님께의 무조건 순종)

* '전통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는 개인이 회생할 수도 있다'는 의식들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문화유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통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단 계	실천적 추론	참고자료
<p>* 규범이나 가치관은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바뀌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왜곡된 믿음에 의한 제도나 사상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p> <p>*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전통 가족 문화의 어떤 부분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되는 전통은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p> <p>동시에 이 수업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가족 문화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설명한다.</p> <p>* 다음 단계에서는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하게 됨을 예고하며 과제를 제시한다. (내용: 교과서, 소설, TV 드라마, 혹은 자기의 가족 생활속에서 가부장제도의 영향에 의해 갈등이 묘사되는 부분의 예를 찾아 적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주인공이 된 입장에서 생각하여 적는다.)</p> <p>* 평가는 과제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적어낸 것으로 한다.</p>	<p>* 문제에 관련된 여러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에 대해 인식하고 비판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가져온 생각을 일깨워 준다.</p>	<p>* 한국 여성단체협의회(1990) pp117--118</p> <p>*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 회의(1989)pp70-77</p>
<p>둘째 단계</p>	<p>교수·학습 활동</p>	<p>참고자료</p>
<p>* 첫째 단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과제를 발표시킨다. (예: 여자가 비합리적인 문제를 남자에게 거론하면 대개 남자가 큰 소리를 쳐서 말을 가로막고 오히려 야단을 친다.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좀 당당하게 행동하면 벌나고 비 정상적인 사람처럼 묘사된다.)</p> <p>(학생들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적절한 대답이 없을 때 교사는 이러한 예를 들 수 있다.)</p> <p>* 이러한 가부장 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던 예나, 대치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것을 토의하도록 한다. (예: 항상 바쁘보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 활동을 하는 떠느리가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실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다.)</p> <p>* 가족 내에서 여자, 남자의 구별을 하여 받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예: 남자니까 꼭 성공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 여자가 아니면까 암전히 행동하고 나서지 말라는 압력을 받는다.)</p> <p>* 가족 내에서 여자, 남자의 구별을 하여 받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여기서 남학생은 남자로, 여학생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학생이 더 많았다.)</p> <p>(예: 공부하거나 행동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 받기 싫다. 남자가기 때문에 받는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보다는 훨씬 자유롭다.)</p> <p>*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남자도 가부장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우리 가족 문화의 영향과 역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p>	<p>* 문제에 관련된 여러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에 대해 인식하고 비판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가져온 생각을 일깨워 준다.</p>	<p>* 한국 여성단체협의회(1990) pp117--118</p> <p>*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 회의(1989)pp70-77</p>

<p>일반적으로 규정된 영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들에 첫째 단계에서 배웠던 '왜곡된 믿음의 예'임을 설명한다.</p>	<p>*TV 만화 영화나 민화체의 남·여 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예: '개구장이 스머프'에서 남자 주인공 스머프는 일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며, 여자주인공 스머페트는 나태하고 나약한 의존적 성격으로 묘사된다.)</p>	<p>*또 하나의 문화 동인 (1985) pp98-99</p>
<p>*위와 같이 TV 드라마, 동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서 일반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킴을 주의시킨다. (이 수업에서는 시간상 다루지 않았지만 학교교육을 통해 심어주는 성차별 의식에 대해 읽고 참고 바람.)</p>	<p>*'말광량이 빼빼' 그림을 보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그림제시) (예: 용감하고 씩씩하다, 힘이 세다, 장난이 심하고 실수도 잘하나 의리가 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여아이이지만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설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설명한다.</p>	<p>*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 회의(1989)pp96-102</p>
<p>*속재를 하기 전까지는 TV등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아 넘긴 것처럼, 고쳐야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한다. 즉, 왜곡된 믿음을 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어떤 점들을 고쳐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세 가지 광고를 제시하고 느낀 점을 발표시킨다. (예: 공익 광고-남자들만 대접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가 동등해 보이지 않는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싫다.)</p>	<p>*문체에 대한 중래의 시각적인 해결 방법을 조사, 토의하고 대안을 제안한다.</p>	<p>*또 하나의 문화 동인(1985) pp105-106</p>
<p>우리 아버지도 광고처럼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대가방 광고-훈자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p>	<p>*위의 광고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도 그려 볼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생각해 나갈 과제임을 강조한다. *가부장제도 자체내의 왜곡된 믿음에 의해 빚어지는 갈등의 예로 '계사는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문체를 제시한다.</p>	<p>*추구하는 바람직한 이상 상태나 목표를 설정한다.</p>
<p>여기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토의한다. (예: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p>	<p>*문체의 여러구면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다.</p>	

<p>* 우리의 법적 제도가 모든 형제자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도록 되어있으나 우리의 관습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으로 인해 현대에서 갈등이 일어남을 인식시킨다.</p> <p>* 지금까지 왜곡된 믿음으로 인한 가부장제도의 모순점을 알게되고, 따라서 바뀌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음을 설명한다.</p> <p>또한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할지를 묻는다. (예 : 사회적 제도, 왜곡된 믿음, 가정과 학교의 교육, 매스컴,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해야 한다.)</p> <p>* 변화를 시키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남녀가 서로 다른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부터 스스로 버리고 행동 기준을 인간다운 가치에 두어야 함을 인식시킨다.</p> <p>또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며 둘째 단계를 마무리 한다.</p> <p>* 다음 단계에서는 과제물을 토대로 '역할놀이'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역할놀이'의 연기자, 관찰자 선정을 위해 과제물을 하부전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다.)</p> <p>* 지금까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인식 자체로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생활에서 변했나를 연습해야 함을 설명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의 당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됨을 강조한다. (과제내용 : 다음의 상황이 가족회의에서 전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킵니까?)</p> <p>—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주인공인 중학생 여자 이렇게 다섯 식구가 주인공의 진로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중에 의견 대립이 생겼다.</p> <p>즉, 부모님은 사회적인 통념상 주인공이 여자로서 가장 무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교사가 되라고 하시고 주인공은 꼭 훌륭한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p>	<p>*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찾는다.</p> <p>* 이성적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p> <p>*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단계와 조직이나 단체에서 계획, 실천한다.</p>	<p>참고자료</p>
<p>단 계</p> <p>셋째단계</p> <p>* 지난시간까지 배웠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다시 확인시킨다.</p> <p>*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 구상해온 생각을 역할놀이로 꾸며본다. (교사는 숙제를 미리 읽고 여기에 근거해서 역할놀이의 연기자를 선출해 놓는다.)</p> <p>* 관찰자들에게 몇가지 주의점을 설명한다.</p> <p>* 가상적 '역할놀이' 내용 등장인물의 성격</p>	<p>실천적 추론</p> <p>*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단계와 조직이나 단체에서 차원에서 계획, 실천한다.</p>	<p>* Bank, A., M.E. Henson, L. Eu. 박성일, 권낙원 (공역)(1994)</p>

* Joyce, B.,
M. Weil
김종석, 김언
주, 백옥현(공
역)(1992)

계획, 실천한
다.

* 각 개인의 문
체에 대한 사
고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에 대해 토의
한다.

- 할머니 : 가장 반대(전형적인 유교사상의 소유자)
- 아버지 : 공무원, 반대(전형적인 유교사상의 소유자)
- 어머니 : 전업주부, 중립(내면으로는 딸을 지지함)
- 삼촌 : 프리랜서, 찬성(아버지와 비슷한 세대이나 생각은 합리적임)
- 나(주인공) : 딸(자기 진로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장면1 : 나(…)어머니
어머니와 주인공은 가정숙제인 '진로'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여기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장만 이야기하게 되어 의견대립이 생긴다.

장면2 : 아버지(…)어머니
딸의 장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면3 : 가족회의(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중간에 삼촌이 등장)
어머니-침묵, 아버지-일방적, 할머니-아버지를 거들어 줌
나-답답함, 이때 삼촌이 등장, 삼촌-내 편을 들어줌, 아버지와 논쟁을 벌임
아버지와 할머니가 주인공이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 의견을 내고 있
다. 이때 삼촌이 등장하여 아버지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임.

장면4 : (나의 고민 : 두백, 두개의 자아가 차별로 등장)
두개의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함.

장면5 : (다시 가족회의)
삼촌이 직업에 대한 편견은 옳지않고, 민주사회에 맞지않는 사고임을 설득한다.
주인공도 개구무먼이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 못지 않게 보람있고 가치있는 직업을 설
득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유명한 희극배우인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가 이들의 이야기를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어 가족회의가 끝난다.
* 역할놀이를 끝낸 후 토론과 평가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결과이며 행위자의 동기이다.
* 지금까지 실현된 '역할놀이'를 보고 느낀 점을 토의시킨다.
-'나'라는 인물에 대한 느낀 점을 토의시킨다.
-'나'와 같은 행동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느낌은?
-'어머니'역할에 대한 느낌은? (그밖의 다른 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시킨다.)

- 실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의 느낌을 듣는다.
- 전반적인 결론에 대한 생각을 토의한다.(만족한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 수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연기자로 재연시킬 수도 있고 첫번째 실연을 비교해가며 토론, 평가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좀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며 스스로의 생각, 느낌, 믿음을 남에게 표현하며 남의 표현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 실연자와 재연자, 관찰자들의 토론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바를 상호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 *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 * 서로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중요함을 주지시킨다.
- * 앞에서 '역할놀이'에서의 나의 행동이 최선이었냐에 대해 던졌던 질문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
- *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우리들이 변화를 위해 도울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 *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부모님께 신뢰감을 드려야 하며, 좀더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때 이러한 이해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 (본 수업을 통해 '역할놀이' 모형이 추구하는 직접,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과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두번째 실질적인 문제를 예고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 (과제내용 : 나의 가족구성원 각자의 생활모습을 오후 6시부터 취침 전까지 시간대 별로 자세히 비교, 관찰하여 적어보자.)

* Bank, A.,
M.E. Henson,
L. Eru.
박성익, 권낙원
(공역)(1994)

(표 2) 실질적인 문제 2. 새로운 가족 문화의 창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실천적 추론	참고자료
첫째 단계	<p>*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문제인 “우리 가족이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믿음은 미래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을 미래에 유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음을 상기시킨다.</p> <p>*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가족 문화의 창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루려고 함을 설명한다.</p> <p>* 먼저 문화적 전통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임을 설명한다.</p> <p>* 과제를 학생 3~4명에게 발표시키고, 교사는 발표내용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여 칠판에 적어본다. (예: 남자-TV 보기, 숙제하기, 신문보기, 책보기, 휴식취하기 ... 여지-청소하기, 빨래 걷어 개기, 저녁 준비 하기, 설거지 하기 ...)</p> <p>* 숙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을 토의한다. (예: 남·여의 일이 거의 구별되어 있다. 저녁 시간을 가장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다. 어머니는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을 주로하고 개인 생활이 거의 없는 것 같다.)</p> <p>* 일반적인 성역할 부분이 심한 경우가 많고, 한편 가족 구성원이 서로 협조하는 가정도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통계를 내보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성역할 부분이 있는 가정-60%, 부부가 다 사회 활동을 하는 가정-40%)</p> <p>여기서 아직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여자들이 과중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p> <p>*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문제와 연결해서 전통의 모습과 가정의 안이나 밖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적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p> <p>* TV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부 장면을 보면서 받은 느낌을 발표시킨다. (예: 할머니, 아버지는 각듯이 대접 받으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등하게 대접 받지 못한다. 여자나 아이들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p> <p>* 전통적 가부장 제도에서는 ‘여자 하나가 희생하면 온 집안이 편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여자는 한없이 희생만 하고 다른 식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임을 이야기 한다. 남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만을 중요시 여겨서 매사에 수동적이고 어떤 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기에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p> <p>* 서양의 가족 모습인 TV 드라마 ‘코스비 가족’의 장면을 보면서 받은 느낌을 발표시킨다. (예: 부부가 서로 가정인을 함께 도우며 한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기의 의견이나 요구를 자신있게 말한다.)</p> <p>* 위의 두 가족 형태의 차이점에 대해 토의한다.</p>	<p>* 문제에 관련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곡된 믿음에 대해 인식하고 비판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가져온 생각을 일깨워준다.</p> <p>* 문제와 관련된 주변 환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해석을 한다.</p>	

<p>(예 : 우리의 가족에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회생을 요구한다. 서구의 가족에선 개개인을 중시하는 평등사상을 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목적은 가족의 화목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 전통문화의 모습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갈등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p>(예 :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어른들은 이해를 못한다. 제기차기기를 여자가 한다고, 공기놀이를 남자가 한다고 야단을 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매스컴을 통해 외래문화를 접하게되는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선 전통문화의 모습을 보게되므로 동시에 두가지 갈등을 겪게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충돌에서 오는 위화감으로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모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출할 것인가를 토의 한다. <p>(메스컴,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잘못 행동한 경험과 고쳐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조별로 토의한다.)</p> <p>(예 : 스스로 전통문화를 부정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성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 유행에 따라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산다. 외국산품의 비싼 운동화를 산다, 서구 음식을 더 즐겨 먹는다. 화장품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충동구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더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p>(여기서 교사는 토의 결과가 가족 생활에서의 각 영역인 의, 식, 주, 소비생활에 관련된 생활과 가족 문화에 대한 왜곡된 믿음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도록 이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한 인식의 변화,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문화 창출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를 통해 행동을 통해 실천해 보겠다고 모은 의견을 다음 단계에서는 '학급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라고 제의한다. <p>(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실행해 나가지만 학급에서도 행동의 변화, 실천에 옮기는 것을 학습하도록 다음 단계에서는 '학급회의'를 꾸민다. '학급회의'는 한 학기내내 유지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종래의 시각적인 해결방법을 조사, 토의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얻는다. * 종래의 방법과 대안을 비교하여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단계와 조직이나 단계적 차원에서 계획, 실천한다.(이성적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	--

* 임춘식(1987)
p200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실천적 추론	참고자료
<p>둘째단계</p>	<p>*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문제인 '세로운 가족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서 서구 문화와 전통 문화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과제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보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p> <p>* 학생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재활용품 장터'를 여는 문제에 대해 '학급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다. (과제물을 통한 토의를 통해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수용한 외래문화에 따른 유행풍조로 인한 과소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수업은 학생들이 지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논하며 특히 집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학급회의' 수업 모형을 사용하였다.)</p> <p>* 가상적 '학급회' 내용 :</p> <p>사회자 :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뜰 장터'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우선 어떻게 이 장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세요.</p> <p>학생 1 : 1달에 1번씩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p> <p>학생 2 : 그러면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일찍 수업이 끝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는게 좋겠어요.</p> <p>학생 3 : 우리 반 자체의 장터는 주중에 하고, 계절마다 한번씩 전교생에게 개방을 하여 큰 장터를 여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p> <p>사회자 : 학생3의 의견이 아주 좋은 생각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p> <p>학생들 :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p> <p>사회자 : 품목은 어떤 종류가 좋을가요? 학생 1 :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품을 너무 자주 사들이는 문제에 대해 반성을 했었으니까 학습품을 주로 하면 좋겠어요.</p> <p>학생 2 : 음반은 어떨까요? 1 사람이 1개 이상씩 가져와서 학급에 비치해놓고 학급문고처럼 대여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학생 3 : 앞에서 합의된 것처럼 계절마다 열리는 큰 장터에서는 의류나 가정용품도 품목으로 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p> <p>사회자 : 팔리지 않고 남는 물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 1 : 내놓은 물건의 숫자를 합산해서 작은 기념품과 감사장을 주면 좋겠어요.</p>	<p>*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인 단계와 조직이나 단체적인 차원에선 계획, 실천한다.</p>	<p>* Joyce, B., M. Weil 김종석, 김인주, 백유현(공역)(1992)</p>

<p>학생 2 : 물건을 판 가격의 1/2을 보상에 주고 나머지를 수익금을 쓰면 좋겠어요. 학생 3 :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았으니까 학생1이 말한 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p>	<p>학생 4 : 안쓰는 물건을 많이 가져온 것이 꼭 자랑일 것 같지 않아 없앨테니 감사장은 빼고 기념품만 주면 어떨까요? 학생들 : 좋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이 장터를 운영할 사람도 신중해야 하겠어요.</p>	<p>학생 1 : 총무부가 돈 관리를 하고, 봉사부가 수집 정리를 담당하면 좋겠어요. 학생 2 : 그리고 장터 꾸미기는 미화부에서 하도록 하지요. 사회자 : 여러분 어때세요? 학생들 : 그렇게 하지요.</p>	<p>사회자 : 말은 부서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물건을 잘 정리해서 내는 것 부터 시작해서, 장터 운영에 대해 홍보하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겠어요. 학생 : 우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우유팩을 휴지와 교환하여 같이 사회복지 기관에 보내면 좋겠어요.</p>	<p>*아주 좋은 계획이었음을 칭찬한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물건을 계획성 있게 구매하는 태도를 갖는 일이나, 여러분화를 구분별하게 받아 들일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제창조해내는 일이 중요함을 설명한다.</p>	<p>*'알뜰장터'의 계획을 통해 아주 작은 생활의 일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활습관을 기르고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데 제한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실제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본 태도 함양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족 문화를 창출해낼 능력이 생겼음을 확신시킨다. *(학급회의는 오늘 수업시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시초일 뿐 장터가 열리는 기간 내내 학급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즉, 학급회의는 한 수업의 단위로서의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회의의를 통한 계획안 달성과정을 중요하게 본다.)</p>	<p>학생들은 이 수업의 논의를 통하여 계획위원을 구성하게 되며 계획을 확정지어 제출하고, 공고하게 된다. 가정과 수업에서 제안된 '알뜰장터'의 취지나 계획은 타 학급 및 타 학년에게 전달되며 각 학생의 가정에서도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수업외의 계속되어온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의 대안으로 제안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그들의 자신의 성장발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서의 발달 효과클 얻을 수 있다.</p>	<p>*수업의 남은 시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확정된 계획을 검토할 것을 예고한다. (이 시간에는 제활용의 문제 같은 아주 일부분의 일을 다루었지만 교사는 실제 생활에서의 다른 문제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p>	<p>*각 개인의 문제와 개인사정에 대한 사 고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토의 한다.</p>
---	---	---	--	---	---	--	---	---

본 학습지도안은 가상적인 수업진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맞는 실천적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가정내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며, 실제 생활에서는 가정 과목에서 배운 것에 준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 교과로서의 가정과 수업을 개발하여 보았다. 실천적 추론의 사고과정을 통한 실천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전형적인, 지식이나 기능위주의 가정과 교과과정과 성격을 달리한다.

타 수업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즉, 교사의 충분한 수업준비,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 전형적인 수업단위 시간의 탈피, 교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자율성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관련하여, 수업자료의 개발 및 지도법 연구가 우선된다고 보는데 이는 가정과 교사 일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타 학문 전공자와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맺 음 말

본 연구에서 교과과정 개발의 근거로 사용한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의 특징은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며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실천적 행동에 역점을 두었다.

Brown의 교과과정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습자는 독립적으로 비판적,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보호하는데 지적, 도덕적으로 봉사할 책임이 있다. 교육의 목표를 민주적인 사회에서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실천적 행동 능력을 기르는 데 두었다.

Brown의 교과과정 모형을 근거로하여 작성된 학습지도안은 실천적인 추론과정에 따라 수업을 전개하였고 '학급회의', '역할놀이' 등의 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학습지도안에 준해서 실제현장에서 수업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나 참여도가 예상보다 좋았는데 이는 이러한 수업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에 제시된 수업의 내용이나 형태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수업시수로도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간 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바람직한 수업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남여 공통 이수, 새로운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시급하다.

셋째, 이 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수업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들의 연구 모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넷째, 대학의 각 분야의 가정학 연구자들과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들과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등 가정과교육에 적합한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교과연구는 가정학 전공자들 외에도 타 교과 전공자들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과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서 타 학문의 포괄적인 지식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각 교과 사이의 교육내용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2) 김경미(1993). 우리나라의 가정학 본질 규명에 관련된 근본 개념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은주(1985).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정숙(1985).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선(1987).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 <대한가정학회지>, 25(2).
- 6) 또 하나의 문화 동인(1985). <평등한 부모, 자유

- 로운 아이). 25(2), 139-143.
- 7) 문숙재(1987). '87 춘계 학술대회 종합보고, <대한 가정학회지>. 25(2), 139-143.
 - 8) 문영보(1981). 가정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1989). <학교교육과 성차별>. 서울 : 미래사.
 - 10)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종 도서연구 개발위원회(1983). <중학교 가정 교사용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1) 송은경(1989).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의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염상섭(1994). <三代>. 서울 : 한국 능력개발사.
 - 13) 유영주(1977). <가정과교육>. 서울 : 한국 능력개발사.
 - 14) 윤서석(1990). 가정과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2, 111-115.
 - 15) 이기훈(1989).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지>, 27(4), 255-258.
 - 16) 이은정, 신상욱(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 17-30.
 - 17) 이은혜, 강혜원(1983). 가정과 교과과정의 내용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3), 139-149.
 - 18) 이춘화, 이전숙(1990). 구안법을 응용한 고등학교 가정과 교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 29-44.
 - 19) 임춘식(1987). <현대사회의 제문제>. 서울 : 유평출판사.
 - 20) 장명옥(1992). <가정학 원론>. 서울 : 교문사.
 - 21) 장혜경(1994). Marjorie M. 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조영일(1978).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연구. <삼육대학논문집>, 9, 165-185.
 - 23) 주정숙(1978).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활동 조사연구(I). <공주사범대학논문집>, 16, 449-461.
 - 24) 크리스찬 아카데미(1989). <후기산업시대의 세계 공동체>. 서울 : 도서출판 우석.
 - 25) 하버마스, J.(1963). <이론과 실천>. 홍윤기, 이정원(공역). 서울 : 종로서적 주식회사. 1982.
 - 26)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가족학>. 서울 : 하우.
 - 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86). <여성과 대중매체>.
 - 28) Bank, A., M.E. Henderson, L. Eu. <수업모형의 적용기술>. 박성익, 권낙원(공역). 서울 : 성원사, 1994.
 - 29) Brown, M. M. (1976).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30) _____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Washington D. 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1) _____ (1986). Home Economics : A Practical or Technical Science? Voc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 : State of Field,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2) Brown, M. M., B. Paolucci(1979). Home Economics : A Definition, Washington D. 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3) Joyce, B., M. Weil.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김종석, 김연주, 백옥현(공역). 서울 : 성원사, 1992.